

쓰레기 매립지는 자본주의 문명의 이면



'낮익은 세상' 황석영 지음

'강남동'의 표절시비 이후 1년여간 침거했던 소설가 황석영(68·사진)씨가 생애 최초 전작 장편소설 '낮익은 세상'을 들고 귀환했다.

전작 '강남동'에서 강남 개발사(史)를 그려 부를 향한 인간의 욕망과 한국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을 깊은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자본주의와 도시의 속성을 파헤친다.

이를 위해 그가 치킨은 것은 '쓰레기장'이다. 작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으로 이를 지목했다.

소설의 무대는 '꽃섬'. 지금은 월드컵축구장이 들어선 서울 상암동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지로 쓰이기 전에는 난초와 꽃이 피고 철새가 모여들어 '꽃섬'이라 불렸다고 한다.

꽃섬은 1970년대 말부터 서울 지역의 모든 쓰레기를 모아 물어버리는 쓰레기매립지로 이용되면서 순식간에 서울에서 가장 더러운 곳, 도시 문명에서 고립된 섬이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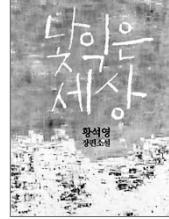
소설은 '부부리'라는 별명을 지닌 열네 살 소녀니 엄마를 따라 이 아이러니한 이름의 꽃섬에 들어와 겪는 일들을 그렸다.

작가는 소녀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쓰레기 매립지의 낮선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해 독자가 일상에서 외면하고자 한 자본주의의 문명의 이면을 눈앞에 들이민다.

"이곳은 분명 사람들이 쓰다 남아서 또는 삶 증이 나서 아니면 무쓰게 된 물건들을 버리는 쓰레기장이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도시에서 내몰리고 버려진 인간들이었다."(44쪽)

이런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도시로부터 내몰린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하나님도 폐품을 더 차지하려고 악다구니를 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가는 소년의 눈을 통해 이곳이 도시문명에서 얼마나 고립된 낮선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욕망과 소비와 폐기물로 반복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낮익은 것임을 날카롭게 꼽집는다.

언뜻 보면 한 편의 슬픈 동화 같은 소설은 꽃섬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보느냐, 땅부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읽힌다.

전자의 관점은 택하면 소비의 낙원을 구가하는 문명의 이면에 관한 소설이라는 점이 돋보이고, 후자의 시각을 취하면 최하층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는 한 소년의 학습과 각성에 관한 성장소설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황석영의 대부분 소설이 그렇듯 이번 작품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장 빈곤한 것 속에 가장 풍부한 것이 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축제처럼 행하는 식사,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자연의 질서에 대한 샤머니즘적 믿음까지. 저자는 문명으로부터 폐기된 사물과 인간의 종착지에 문명에 대한 저항의 오래된 원천이 있음을 일깨운다.

"하지만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들판의 바베큐 갯더미를 놓고 온갖 풀꽃들이 솟아나 바람에 헛들거리고 그늘진 나뭇가지 위의 여린 새잎도 짙푸른 역사의 새싹도 다시 돌아나게 될 것이다."(228쪽)

이처럼 소설의 결말에서는 작가의 세계관과 바람을 염울할 수 있다.

작가는 그리고 있는 것은 이제는 '지옥 또는 천국처럼 낮선 것'이 아니라 너무도 일상적으로 '낮익게 되어버린 세상'이며 사람들이 그 욕망의 잔해와 폐허 속에 갇히지 말았으면 하는 마지막 신뢰와 당부가 담겨있다.〈문학동네·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자를 기증받아 나를 낳았다고?

'올챙이 아빠'

안오일 지음

종편동화 '그래 나는 나다'로 한국 안데르센상을 수상하고 청소년 시집 '그래도 괜찮아' 등을 낸 안오일(44)씨가 단편 동화집 '올챙이 아빠'를 펴냈다. 안씨의 2010년 대교출판 눈높이 이 아동문학상(단편부문) 수상작 모음집이다.

표제작인 '올챙이 아빠'는 엄마가 정자를 기증받아 자신을 낳았다고 아는 '상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재



미있게 그린 작품이다.

이외에도 '지구별' '마음을 훔쳐간 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복' 등 총 8편의 작품이 손지훈씨의 세밀한 그림과 함께 실렸다.

목포 출신인 안씨는 광주대학교 문창과를 졸업했으며 2009년 당시 '사랑하니까'와 11편으로 제8회 푸른 문학상 '새로운 신인상'을 수상했다.

〈대교출판·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실뱀장어를 잡는 소년들의 갈등

'바다로 가는 은빛 그물'

황선미 지음

최근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 표' 두 권이 각각 누적 판매량 100만 권을 기록하며 아동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황선미(48)씨의 신작 동화 '바다로 가는 은빛 그물'이 나왔다.

서해안 소사천 인근에 사는 소년 '명희'와 '귀영'이가 실뱀장어잡이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고 화해하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명하는 비가 억수로 오던 날 귀영이



의 만류를 뿐리치고 실뱀장어를 잡으려 갔다가 그룹에 빠져 죽을 뻔 한다. 운 좋게 목숨을 건졌지만 그 와중에 신발을 잃어버리고 만다. 은근히 힘의 서열을 매기며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는 아이들, 자식을 향한 각별한 부상에,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개천과 물고기와 물러싼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어우러져 읽는 게미를 더한다.

〈시공주니어·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노과학 여행자=서울아산병원 뇌졸중 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인 신경과 의사 김종성씨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낀 예술에 대한 감상과 노과학을 결합시킨 독특한 형식의 '노과학 예술 기행'이다. 의학적인 병명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과거 예술가의 뇌질환에 대해 현대의 의학기술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흥미를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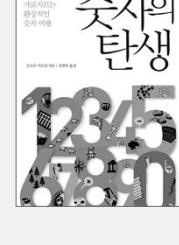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이회영 평전=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부귀영화를 박차고 항일투쟁의 전사가 된 우당 이회영(1867~1932년)의 일대기를 담았다. 평전을 서술하면서 저자가 가장 강조한 이회영의 면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 개인의 일대기에 국한하지 않고 신재호, 김좌진 등 그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을 통해 당시 항일 독립운동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책보세·2만원〉

▶숫자의 탄생='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도 불리는 숫자의 역사를 살펴본다. 선사시대부터 숫자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0은 누가 발명했을까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비로운 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국내 출간됐다. 〈부키·1만6000원〉

▶그 여자의 방=오프라 윈프리 등 전문적 여성 38인의 '은밀한 곳'을 사진으로 들여다본 책. 디자인 전문가인 크리스 캐슨 마렌은



위한 양육 원칙을 전하는 책. EBS PD들로 디큐멘터리 '아이의 생활'과 동명 도서로 호평받았던 저자들은 이 책에서 부모들의 잘 못된 자녀교육 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결핍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채널·1만4000원〉

한 여자의 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함

'미칠 수 있겠니'

김인숙 지음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김인숙이 새로운 장편 소설 '미칠 수 있겠니'를 펴냈다.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한 여자의 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접한 진실, 그 후에 만나게 되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7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과 현재 일어난 진진해일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읽는 재미를 준다.

소설 속 등장인물은 드라이버 이야기나 만, 만의 외국인 외부엄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진과 디자이너인 진의 남편 유진 등이다.

주인공 진은 살인 사건을 겪고 나서도 죽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의 시선을 묵묵히 참아내며 유진을 찾아 매번 섬을 찾는다. 섬에 간 진은 예전부터 유진의 집에서 일하던 여자 아이가 배가 불룩한 채 유진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걸 발견한다.

섬의 관광객을 안내하는 드라이버 이야기나 진을 태우고 재래시장을 관광하고 사람을 치료해주는 헬퍼를 만나려고 우연히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다음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야기는 진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한겨레출판·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명으로 살펴본 사치의 시원과 역사

'사치와 문명'

장 카스타레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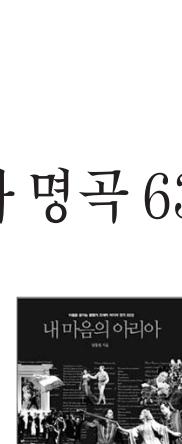
2만2000년 전의 조각상 '두건을 쓴 부인'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삶의 부수적인 부분인 사치를 열망한 행위라는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물건을 생존을 위해 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치품으로 인식했다.

또 현대 러시아, 일본, 브릭스 등 신흥 대국들의 명품선호 현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문화적 현상을 집중 분석한다.

하지만 저자는 사치는 인류 문명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인이라는 점 또한 놓치지 않는다.

〈뜨인돌·2만2000원〉



을 생존을 위해 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치품으로 인식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음악선생님을 통해 '음악의 세계'에 빠져든 이후 60여 년 동안 클래식 멘토이자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펴낸 '이 한강의 명반클래식'은 음악 애호가들의 필독서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팔순을 맞은 선생이 최근 오페라 아리아 명곡 63곡을 뽑아 '내 마음의 아리아'를 내놓았다. 근 2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캐스트에 연재했던 내용들

오페라 아리아 명곡 63곡 쉽고 재밌게

'내 마음의 아리아'

안동립 지음

을 수정 증보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어느 간 날', '그대의 친손', '죽배의 노래', '제 이름은 미미입니다', '별은 빛나고' 등 귀에 익숙한 주옥같은 아리아들이 선생의 해설로 생생하게 다가온다.

한밤중에 아내와 춤을 춰야만 했던 모차르트와 쓸쓸한 죽음, 플루트를 무색하게 한 목소리 마리아 칼라스, 푸치니의 미완성곡 투란도트를 연주하다 토스카니니가 도중에 지휘봉을 놓은 사연 등 아리아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는 재미도 쓸쓸하다.

책 출간에 맞춰 유니버설 뮤직과 EMI에서 동명의 음반도 내놨다. 두 장의 CD로 구성된 음반에는 책에 담긴 아리아 가운데에서도 명연주만 골라 수록했다.

〈현암사·3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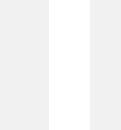
▲책 읽기는 게임이야

=책 읽기의 특징을 재미 있게 풀어놓은 그림책이 다.

‘책은 보물 상자야’ 책 읽기는 계단 오르기야’ ‘책은 완두콩이야’ 같은 비유로 책과 책 읽기의 좋은 점을 쉽게 설명했다.

만화처럼 한쪽에 여러 컷의 장면을 배치,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웅진주니어·9500원〉



▲수학 일기 쓰기=수

학일기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는 책. 책에 따르면 수학일기란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

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뭉쳐 책을 집필했다.